

“우한폐렴 확산될라” 일선 학교 ‘비상’

광주·전남교육청, ‘우한市 방문자 14일간 등교 중지’ 긴급 문자공지

졸업식도 학급단위 진행·마스크 착용 지시 “모든 방안 마련 감염 차단”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번째 확진자가 평택 지역에서 나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임시 휴원에 들어간 2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우한폐렴과 관련해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환자가 4명 발생하면서 설 연휴를 마치고 28일부터 개학하거나 방과후 교실

중국 우한지역에 다녀오거나 우한 폐렴 증상이 있는 학생들 파악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우한폐렴에 따른 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27일 오후부터 관련 부서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또 28일 오전 9시 정회국 교육감 주재로 관련 부서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감염병 위기대응 대책반 단장을 부교육감으로 격상하는 등의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일선 학교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를 다녀 온 학생과 교직원’은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14일 동안 등교 중지’를 안내했다.

또한 28일 개학하는 학교나 유치원에 대해 방학 중 중국 여행 여부를 체크해 이상 시 방역당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장복기가 14일인 우한폐렴은 장복기에도 감염을 일으키며 코막힘,

두통, 기침, 목통증,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도 28일 이기봉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비상대책반’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및 보건(담당)교사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시·군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감염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에 ‘학생감염예방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도록 조치했다.

각급 학교의 졸업식도 전교생을 모으지 말고 가능한 학급 단위로 진행하고,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도 발열·기침 등 폐렴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지역보건소나 국번 없이 1339번으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정석웅 전남교육감은 “각 급 학교의 개학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 감염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쥐에서 나온 사촌들 ‘사스 vs 메르스 vs 우한폐렴’

사스·메르스·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비교

| 종류 | 코로나 바이러스 | | |
|-----------|--------------|---------------------|--|
| | 사스 | 메르스 |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
| 발견시점 | 2002년 | 2012년 | 2019년 |
| 발견장소 | 중국 | 사우디 | 중국 |
| 바이러스 유전형태 | RNA | RNA | RNA |
| 장복기 | 2~7일(최장 14일) | 5~6일(최장 14일) | 2~4일(최장 14일) |
| 감염 매개체 | 박쥐 | 박쥐 | 박쥐(추정) |
| 전파 | 비말 | 비말 | 비말 |
| 지역사회 감염력 | 있음 | 거의 없음 | 있음 |
| 치사율 | 10% 내외 | 중등 30~40% 안국 20% | 2% (중국, 미국, 일본 등 포함 약 45명 중 9명 사망) |
| 백신·치료제 | 없음 | 없음 | 없음 |

이(RNA)를 갖고 있다. RNA는 사람의 유전물질인 디엔에이(DNA)보다 불안정해 돌연변이가 쉽게 발생한다. 잠복기도 세 감염

국내에서 4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중등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같은 계열의 병원체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스와 유전자 염기서열이 70~80% 유사하다. 메르스는 50% 상동성(유전자 및 단백질의 유사한 성질)을 보이고 있다.

가오푸(高福) 중국 질병예방 통제센터 주임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스와 높은 유사성이 보인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과일박쥐를 숙주로 삼는 ‘HKU9-1’ 바이러스가 사스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조상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사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촌지간인 셈이다.

중국 베이징대학교와 광시대학교, 닝보대학교 연구팀도 지난 22일 국제학술지 바이러스학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야생 햄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박쥐를 먹은 뒤 변종이 발생했고, 이 햄을 다시 사람이 잡아먹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한 폐렴과 사스, 메르스 등 세 질환 모두 박쥐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람에게 대규모 전파를 일으킨 것이다.

3개 감염병 모두 공통적으로 바이러스가 유전물질로 알엔에

병 모두 1~7일, 최장 2주일로 비슷하다. 마땅한 치료제 없고 항생제 투여 등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는 것도 같다.

하지만 전염력과 치명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치명률은 병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감염병 확진환자 중 사망자 비율을 뜻한다.

메르스는 지난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감염자가 보고됐다. 중동지역 감염자 사망률은 30~40%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2015년 첫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총 186명의 확진환자 중 38명이 숨져 20.4%의 치명률을 보였다.

지난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 남부에서 유행을 시작한 사스는 치명률이 10% 내외로 메르스보다 훨씬 낮았다. 우한 폐렴은 치명률이 중국에서 2.8%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조만간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할 때 사스, 우한 폐렴, 메르스 순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스는 지역사회 전파로 전세계 37개국으로 퍼져나갔고, 확진환자가 8000여명 발생했다. 우한 폐렴은 확진환자가 2300여명 수준이며, 확산 속도에 따라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메르스는 국내에서 186명이 확진환자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병원 내 감염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마스크 다 팔렸대”... ‘품질대란’에 시민들 발 ‘동동’



국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27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가 품질로 텅 비어 있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마트를 찾은 가족이 텅 빈 매대를 바라보고 있다.

“저 편의점은 다 팔렸어요. 마스크 어디서 샀어요?”
“애들 손 잘 씻기고 마스크 꼭 씌워서 보내요”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28일 오전 서울 출근길의 풍경도 달라졌다. 도심을 걷는 시민 절반

반 이상은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거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발길을 재촉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집을 나선 한 직장인은 심상치 않은 풍경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매하기도 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출근을 하다가 말고 전화를 걸어 “아이들 손을 깨끗하게 씻기고 꼭 마스크를 씌워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편의점을 전전하는 풍경도 연출됐다. 서울 중로로 출근한 직장인 B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동료에게 “회사 앞 편의점은 마스크가 다 팔렸다고 하더라”라며 “아디로 가야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느냐”고 발을 동동 굴렀다.

이날 마스크는 물론 장갑까지 끼고 출근했다는 직장인 정모씨(30·여)는 “어제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인기 상품은 모두 품절이었다”며

“4번째 확진자가 서울을 활보하고 다녔다는 말에 온 집안이 비상이 걸렸대”고 울상을 지었다.

‘우한폐렴 공포’가 사회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이커머스(온라인쇼핑몰)의 마스크와 손세정제 판매량이 일주일 사이 최대 7000% 폭증하는 등 ‘폼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베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G마켓에서 팔린 마스크와 손세정제 판매량은 지난주 대비 각각 4380%, 1673% 급증했다. 일반 마스크와 황사·독감 마스크는 최대 4437% 더 팔려 동이 났고, 액상형 손세정제 판매량은 무려 7004% 경총무였다.

편의점 CU는 최근 일주일(20~27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출이 전월 대비 10.4배 급증했고 밝혔다. 편의점 마스크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매출이 평소 대비 5~8배 정도 오르기도 마련이다. 하지만 택배 배송이 늦어지는 설 연휴에 우한폐렴이 국내 상륙하면서 매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 061)333-6832 FAX : 061)334-7701
광주사무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석면해체·제거업